

삼성토탈, 동북아가 석유화학 주도

고흥식 사장, 2010년까지 수요·공급 주도 ... 고부가 비중 높여야

고흥식 삼성토탈 사장은 7월19일 “2010년까지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와 공급을 주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삼성토탈에 따르면, 고흥식 사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순수응용화학연맹(IUPAC) 제41차 학술회의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<동북아 석유화학산업 전망>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.

고흥식 사장은 특히, “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초고유가에도 동북아 석유화학 시장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요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고속 성장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미국, 유럽 등 선진국 석유화학기업들이 기술적 차별화가 좀처럼 어려운 동북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고부가 차별제품 개발과 판매 비중을 더욱 빨리 높여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삼성토탈 관계자는 2004년에도 국내 석유화학업계 CEO로는 최초로 <새로운 화학소재의 개발동향>이라는 주제로 산업기술 논문을 발표해 IUPAC에 참석한 석학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.

한편, 고흥식 사장은 <생체 고분자 영역의 개척자>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그레고리 튜 교수에게 <삼성과학자상>을 수여했다.

삼성과학자상은 삼성토탈이 2004년 12만5000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화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구·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20>